

건설동향

BRIEF_{ing}

•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리의 전환, '안전 입문'에서 '숙련 기반 투입'으로

- 건설현장 외국인력 증가 속 '단기 안전 중심 교육'의 한계
- 일본은 '육성취업제'를 통해 숙련관리형 외국인력 양성체계로 정책 전환
- 우리나라도 '교육·검증·배치'가 연계된 통합형 인력관리 체계로 전환 필요

• 건설산업 이미지와 미래 기대

- 건설산업은 '필수 산업'으로 인식, 혁신·미래성 이미지는 부족
- 최우선 과제는 '안전'과 '기술혁신', 특히 '안전'은 현재와 미래의 핵심 가치
- 청년 유입 선결 과제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일·삶의 균형 등 이미지와 문화의 변화

• 연구원 소식

- [건설 재탄생 2.0] ©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과 AI 시대 대전환' 세미나(4.7) 개최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리의 전환, ‘안전 입문’에서 ‘숙련 기반 투입’으로

- 일본의 육성취업제 도입과 숙련관리형 인력 양성 사례를 기반으로 -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건설현장 외국인력 증가 속 ‘단기 안전 중심 교육’의 한계

- 건설업 외국인력의 도입은 산업 내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 되고 있음. 이때 중요한 것은 외국인력을 ‘어떠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하는가’에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의 현장 투입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주로 단기 안전교육 이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무 숙련도 검증과 현장 배치의 연계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6월 산업재해 사망자는 287명으로 그중 외국인은 38명(13.2%)으로 집계됨. 전체 사망자 중 건설업은 138명으로 이중 외국인이 18명으로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함.
- 본 고에서는 일본의 외국인 교육·훈련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건설현장에 진입하는 외국인력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일본의 정책 전환 : ‘육성취업제’를 통한 숙련관리형 외국인력 양성체계 구축

- 최근 일본은 기존 기능실습제도(Technical Intern Training Program, TITP)가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력 활용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제도 개편을 추진함.
- 이에 일본 정부는 2024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육성취업제(育成就業制度)를 도입해 2026~202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¹⁾

1) ICLG(2025), “Abolition of the Technical Intern Training Programme and Establishment of an Employment-for-Skill

- 육성취업제의 핵심은 외국인력을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확보한 후 특정기능(Specified Skilled Worker, SSW)으로 전환시키는 ‘인력 육성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이는 외국인력 정책의 중심을 ‘체류 관리’에서 ‘숙련 관리’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 건설업 외국인력 교육은 육성취업제 도입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입국 전 교육 - 입국 직후 교육 - 현장 배치 이후 OJT’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를 유지하되, 각 단계의 교육 밀도와 시험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음. 즉, 외국인력을 처음부터 즉시 활용 가능한 숙련인력으로 보지 않고 단계적으로 훈련·검증 되는 인력으로 판단하고 있음.²⁾
 - 특히, 일본국제연수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Training Cooperation Organization, JITCO)는 기능실습생의 입국 전 교육에 대해 약 1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입국 후 교육 역시 일정 비율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최소한의 언어, 안전, 직무 이해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먼저, 입국 전 교육은 송출국에서 약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160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짐. 이 교육은 단순한 언어교육이 아니라 건설현장 투입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구성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이 배분됨.⁴⁾
 - 첫째, 일본어 교육으로 일상 회화보다는 작업 지시 이해와 안전 관련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약 60시간을 차지함.
 - 둘째, 산업안전 및 작업 기초교육으로 기본적인 재해 유형과 보호구 사용, 위험 요소 인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40시간을 차지함.
 - 셋째, 직무 이해(공중 기초)와 관련된 교육으로 입국 이후 바로 현장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철근, 거푸집, 토공 등 주요 공종의 작업 개요와 순서를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약 40시간을 차지함.
 - 마지막으로 생활 및 법률교육도 약 20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 입국 이후에는 ‘강습(講習)’이라 불리는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이 과정 역시 약 160시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³⁾
 - 첫째, 안전교육으로 일본 교육 체계에서 약 60시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사례 분석, 보호구 사용, 위험예지 훈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둘째, 직무교육으로 공종별 작업 절차, 장비 사용법, 시공 순서 등이 포함됨. 이는 단순 이론이 아니라 현

Development Programme 2025-2026, Corporate Immigration Laws and Regulations”.

2) OTIT(2025), “Technical Intern Trainee Handbook(第9版)”.

3) JITCO(2010), “Technical Intern Training Program Operative Manual for Sending Organizations”.

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이해를 목표로 하며 약 50시간을 차지함.

- 셋째, 일본어 교육으로 기존의 생활 중심에서 벗어나 작업 지시 이해와 안전 관련 의사소통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약 30시간을 차지함.
- 마지막으로 조직 및 생활과 관련된 교육이 약 20시간을 차지함.

● 현장 배치 이후에는 OJT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육성취업제에서는 여기에 시험 대비 교육이 추가됨. 기존 기능실습제도에서는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을 축적하는 구조였다면, 육성취업제에서는 특정기능(SSW)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한 교육이 병행됨. 특히, 특정기능 건설분야에서는 직종별 기능시험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실제 작업 수행 능력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음.³⁾

- 현장 교육은 ① 공종별 실무 작업 수행, ② 반복적 안전교육(TBM), ③ 품질 및 시공 기준 학습, ④ 특정기능 시험 대비 교육으로 구성됨.

〈표 3〉 일본 건설업 외국인력 교육·훈련 단계

구분	교육 단계	교육 기간	주요 교육 내용	특징
1단계	입국 전 교육 (송출국)	약 1~2개월/ 160시간 이상	- 일본어(약 60시간) : 작업지시 이해, 안전 의사소통 - 산업안전 및 기초교육(약 40시간) : 재해 유형, 보호구, 위험요소 인식 - 직무 기초교육(약 40시간) : 철근·거푸집·토공 등 공종 이해 - 생활·법률교육(약 20시간) : 노동법, 체류 제도	현장 투입 전 최소 역량 확보 (사전 준비 단계)
2단계	입국 직후 교육(강습)	약 160시간	- 안전교육(약 60시간) : 산업재해 사례, 위험예지 훈련, 보호구 교육 - 직무교육(약 50시간) : 작업 절차, 장비 사용, 시공 순서 - 일본어 교육(약 30시간) : 현장 의사소통 중심 - 조직·생활교육(약 20시간) : 협업, 근태, 현장 규칙	현장 투입 기준 확보 (집중 교육 단계)
3단계	현장 배치 이후 OJT	약 3년 내외 (육성 취업 기간)	- 공종별 실무 작업 수행 - 반복적 안전교육(TBM) - 품질 및 시공 기준 학습 - 특정기능(SSW) 시험 대비 교육	경험 + 시험 결합 (숙련 형성 단계)

● 일본은 숙련 관리형 모델에 가까움. 교육은 안전에서 출발하지만, 기능검정과 특정기능 시험을 통해 숙련도를 인증하고, 이후 현장 배치와 체류자격 유지까지 연결함. 즉,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양적 측면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작동하게 된 것임.

우리나라의 구조적 한계 : ‘안전 입문형’에 머문 교육체계

● 종합해 보면, 일본은 건설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인력에 대해 기존의 ‘배우면서 일한다’에서 ‘교육받고 시험 통과 후 일한다’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건설업 외

국민 교육은 이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첫째, 교육의 중심이 안전보전에 집중되어 있고 직무별 기초 숙련도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음.
-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 전 교육은 존재하지만, 교육 이수 결과가 작업 배치, 직무 제한, 숙련 단계 관리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셋째, 제도상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적용 차이도 존재함. 예를 들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의 일반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외국인 유형별로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줌.

- 정리하면, 한국의 현행 체계는 안전 입문형 모델에 가까움. 즉, 외국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최소한의 안전 수칙과 기초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임.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익숙하지 않은 작업, 이해하지 못한 공정, 그리고 의사소통의 한계는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임.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교육의 문제는 곧 산업 전체의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음.

건설현장 외국인력 교육, ‘교육-검증-배치’ 통합체계로의 전환 필요

- 일본의 사례를 기반으로 건설현장 외국인력 유입 시 교육·훈련 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첫째,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의 교육이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했다면, 앞으로는 ‘작업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는 단순히 교육 시간을 늘리거나 콘텐츠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 결과가 실제 현장 배치와 직접 연계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임. 즉, 교육은 더 이상 사전 절차가 아니라 ‘현장 진입을 위한 필수 기준’으로 기능해야 함.
- 둘째, 교육-검증-배치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작동해야 함. 현재와 같이 교육 이수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제 역량을 담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입 가능한 작업 범위를 설정하는 구조가 필요함. 예를 들어, 특정 공종 또는 작업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 단위 교육과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작업별 ‘투입 자격’으로 작동해야 함. 이는 단순한 자격제도 도입이 아니라, 작업 위험도에 상응하는 최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생산성 관리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직종 중심이 아닌 직무(작업)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건설현장은 직종 단위가 아니

라 공정 및 작업 단위로 운영되며, 동일 직종 내에서도 작업별 요구 숙련도와 위험 수준은 크게 상이함. 또한 산업재해 역시 특정 직종이 아니라 작업 상황과 공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교육 역시 작업 단위로 세분화·모듈화될 필요가 있음. 이는 교육과 실제 작업 간의 괴리를 줄이고, 교육 결과를 곧바로 현장 적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 넷째, 외국인력을 ‘대체 인력’이 아니라 ‘육성 대상 인력’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함. 지금까지는 인력 부족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접근해 왔다면,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입국 전-입국 직후-현장 배치 이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숙련 수준에 따른 경력 축적 및 상향 이동 경로를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4〉 건설업 외국인력 교육·훈련 개선 방향

구분	현행 구조	개선 방향 (일본 사례 기반)	정책적 의미
교육 목적	최소한의 안전 확보	작업 수행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교육 → ‘현장 투입 기준’으로 기능 전환
교육-현장 관계	교육과 현장 분리	교육 결과가 배치 기준으로 직결	교육의 실효성 확보
검증 방식	이수 여부 확인	직무 수행 능력 평가(Pass/Fail)	형식 → 성과 중심
배치 방식	인력 부족 시 즉시 투입	검증 결과에 따른 작업 범위 차등 배치	안전·생산성 동시 확보
교육 단위	직종 중심(예 : 철근공)	작업 중심(예 : 철근 배근, 거푸집 설치)	실제 현장 운영 단위 반영
인력 관점	대체 인력	육성 대상 인력	중장기 숙련 축적 구조
시스템 구조	단절(교육-검증-배치 분리)	통합(교육→검증→배치 일체화)	관리 가능성 확보

-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 체계와 더불어 관리 인프라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교육 이수, 평가 결과, 투입 작업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검증-배치 간 연계는 제도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움. 특히, 외국인력의 경우 체류자격·고용정보·안전교육 이력 등을 연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함.
- 결국 문제는 교육의 유무가 아니라 구조임. 현재 시스템은 교육이 현장과 분리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교육이 곧 현장 진입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외국 인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핵심 과제는 ‘얼마나 많이 투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인력을 투입할 것인가’에 있음. 즉, 정책의 초점은 인력 규모 관리에서 ‘준비된 인력의 공급 구조 설계’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 이미지와 미래 기대

- 건설동행위원회의 2025 스마트 건설·안전·AI 엑스포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건설동행위원회 설문 개요

- 본고는 건설동행위원회가 스마트 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현장 참가자들의 인식과 기대를 분석함.
 - 설문은 건설산업의 현재 이미지와 변화 방향에 대한 참가자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2025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3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244명이 응답함.
- 설문 결과는 일반 국민이나 건설산업 전체 종사자의 인식을 대표하기보다 엑스포 참가자, 즉 건설산업과 기술혁신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집단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엑스포 현장에서 받는 설문의 특성상 문항은 직관적 인식 파악에 초점을 두었으며, 응답자의 배경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음. 이에 본 결과는 엄밀한 실태 진단보다는 현장 참가자의 인식과 기대를 탐색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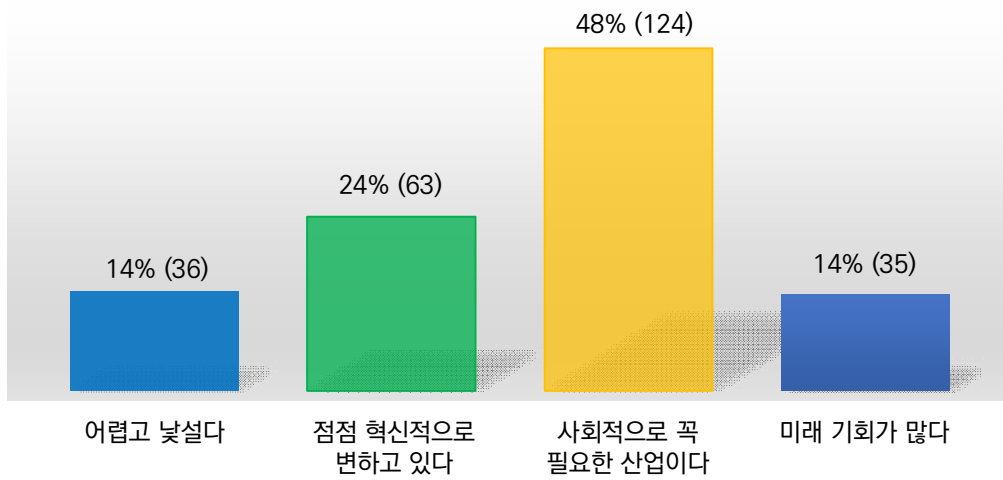
건설산업에 대한 현재 인식

-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48%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응답함.
 - 설문 응답자들은 건설산업을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은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직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4)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공기관, 협·단체, 기업 등이 참여한 전시회로, 본 설문은 엑스포에 참여한 건설동행위원회의 홍보분과(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진행하였으며, 설문 분석은 제도분과(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함.

- 반면, '점점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24%)', '미래 기회가 많다(14%)'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음. 건설산업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 비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산업으로의 이미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스마트 건설, 디지털 전환(DX) 등 관련 담론이 정부와 대형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기술 도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일선 현장의 체감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1〉 나는 건설산업을 이렇게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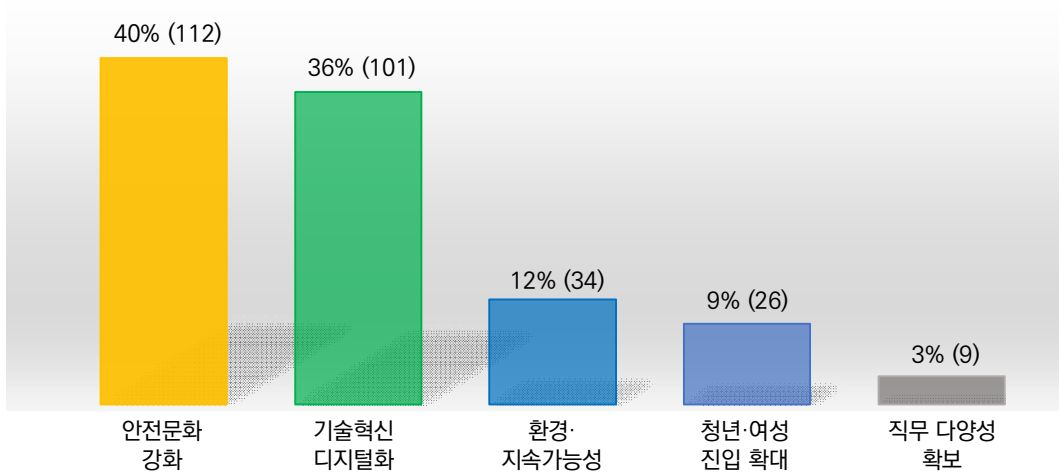


주 : 총 244명이 응답하였으며, 복수 선택을 포함한 전체 258회의 응답을 100%로 하여 비율을 계산함.

📦 건설산업 변화의 우선순위

- 건설산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로는 '안전문화 강화(40%)'와 '기술혁신·디지털화(36%)'가 응답됨. 이는 건설산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 과제로 안전과 기술이 우선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줌.
- '속도'와 '효율' 중심이던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안전'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임.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안전은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
- 반면 환경·지속가능성(12%), 청년·여성 진입 확대(9%), 직무 다양성 확보(3%)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중을 보였음. 이들 영역은 중장기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응답자들의 우선순위는 안전과 기술혁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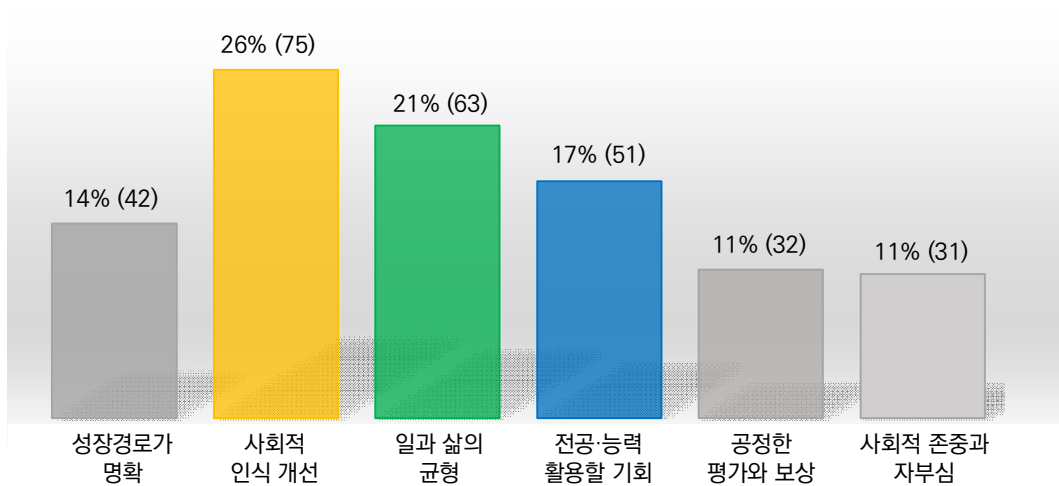
〈그림 2〉 건설산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



주 : 총 244명이 응답하였으며, 복수 선택을 포함한 전체 282회의 응답을 100%로 하여 비율을 계산함.

- 한편, 청년 유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26%)’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함.
 - 이는 건설산업이 육체노동 중심, 위험한 일터, 불투명한 산업 구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청년 인재 유입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음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21%)’, ‘전공·능력 활용할 기회(17%)’, ‘성장 경로가 명확(1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그림 3〉 건설산업을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산업으로 만들려면?



주 : 총 244명이 응답하였으며, 복수 선택을 포함한 전체 294회의 응답을 100%로 하여 비율을 계산함.

맺음, 건설산업의 미래 방향

-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현장 참가자의 인식과 미래 기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안전은 건설산업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묻는 문항과 10년 뒤 미래 건설산업에 전하는 문장 모두에서 핵심 응답으로 나타났음. 이는 안전이 캠페인 구호나 법적 규제 대응의 수준을 넘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 특히, 기술 중심 행사인 스마트 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안전이 기술혁신보다 우선시된 점은 주목할 만 함. 한편으로 건설산업의 안전 수준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건설 기술혁신을 선언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쌓아가야 하며, 스마트건설·디지털 전환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음. 그러나 혁신적 산업이라거나 미래 기회가 풍부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 유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일·삶의 균형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인바, 건설산업 외부의 이미지와 내부의 문화 두 영역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사회적 인식이 외부에서 건설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일·삶의 균형은 산업 내부의 조직문화에 관한 문제임.
 - 건설산업의 안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는 안전이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최우선 가치임을 보여주었음.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건설산업 안팎에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혁신적인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 재탄생 2.0



건설산업 재탄생 (Rebirth) 2.0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과 AI 시대 대전환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14시

장소 :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 아트홀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리즈 세미나 2

가치회복 · 규제혁신 · 생산개혁, 건설산업의 근본적 해법 모색

AI + Robotics는 산업의 근본 변화를 이끌 선도 기술

AI 등 스마트 기술의 전면적 수용을 위한

① 정부 정책·제도·기준과

② 기업의 경영·본사·현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선제적 구상 필요

기술 혁신의 핵심 수단 : 인공지능·로봇을 통한 산업 대전환 방향 제시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20	개회사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축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환영사	이충재 원장
14:20 - 14:50	1주제 건설산업 재탄생 2.0 - 담론을 넘어 실행을 위한 전략 -	손태홍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14:50 - 15:20	2주제 지능형 건설의 도래 - AI 기반 건설산업의 미래 지형도 -	최석인 기획·경영본부장
15:20 - 15:50	3주제 건설 AI 시대 정부·기업 대응 방안	전영준 연구센터장
15:50 - 16:00	Coffee Break	
16:00 - 16:50	총합토론	